

‘버스 사태’ 시민만 고통

전남 일부지역 운행중단, 광주는 일단 유보 ‘택시 대중교통’ 법사위 통과...대책마련 분주

전국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가 22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한 가운데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 중단에 동참하기로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6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지자 전국 버스업계가 초강수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일 광주·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회사 56개 업체는 이날 오후 ‘전국 버스운행 중단’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광주는 2500여명, 전남은 3400여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날 밤 늦게까지 운행 중단 철회를 설득한 끝에 일부 지역에선 버스 정상운행을 결정했다.

21일 밤 9시 현재 광주 전 지역과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의 버스업체들이 정상운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시의 간선망을 운행하는 금호고속은 운행 중단 여부를 이날 밤 늦게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이번 운행 중단에 동참하지 않는다.

‘버스 대란’ 우려에 광주시와 전남도도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버스운행이 중단된 시·군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400여대를 투입해 주요 노선에는 30분 간격으로, 일반노선에 대해서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택시부제와 자가용 차량 요일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지하철 증편, 마을·전세버스 확보 등 운행중단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버스운행이 중단된 지역에 한해 22일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의 등교시간 및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버스운행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했다.

검찰은 버스운행 중단 행위가 폭력성을 띠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버스 운행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재자 투표 꼭 하세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 21일 전남도선관위는 나주 동신대에서 부재자 신고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전남도선관위는 부재자 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전남지역 대형산단 근로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 안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단일화 룰, 文·安 담판으로 가나

실무팀 협상 여론조사 문구 대치속 합의점 찾을지 관심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야권후보 단일화 방식 협상이 21일에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단일화 방식이 양 후보 간 담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허승창 대외협력실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 양측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단일화 방식 협상을 재개했으나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이에 양측은 3시간 만인 정오경 협회를 선언했으며 오후 3시30분께부터 다시 약 한 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다시 중단됐다. 양측은 이어 오후 6시 협상을 재개했으나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가장 큰 쟁점은 여론조사 설문 문

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후보 측은 단일후보 적합도, 안 후보 측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양자 가상 대결 방식을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단일화 경선이란 건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운데 누가 더 나은지를 가리는 것”이라며 “선거일은 12월19일이다. 여론 방향과 추세를 나타내는 게 적합도 조사”라고 강조했다. 가상대결에 대해서는 “박 후보 지지자들이 (박 후보가 경쟁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관단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권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불합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가상대결은 내일 선거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문구”라며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 목적은 야권의 단일후보가 누가 돼야 하느냐보다는 야권의 단일후보로 누가 이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맞

받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는 적합도 조사에서, 안 후보는 박 후보와의 가상대결 방식에서 우위를 점해 왔다.

문 후보 측은 또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지지도’를 묻자고 수정안을 냈지만 안 후보 측은 역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두 후보가 직접 만나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크회에서 “(단일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문 후보와 만나 두 사람이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단일화 방식을 정하기 위한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 관계자들도 후보 간 담판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어서 두 후보가 꼬인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가군)
원서접수 12.21(금)~26(수)
2013 대학원 일반전형
원서접수 11.12(월)~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영광원전 4호기도 ‘이상징후’

6월 정비중 발견...제어봉 안내관 결함 가능성

영광원전 4호기에서도 3호기와 같은 제어봉 안내관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립실장 등은 21일 영광군청을 방문,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및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은 강 위원장 등에게 지난 6월 실시한 계획예방 정비 중 영광 4호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윤원 원장은 제어봉 안내관 4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균열이나 결함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의 관계자는 “6월 실시한 계획예방 정비 중 원자로 상단 안내관을 비파괴검사(초음파검사)한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서도 “추가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함이나 균열은 발견되지 않아 내년 12월 실시되는 계획예방 정비까지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함은 지난 13일 민주통합당의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유은혜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됐다.

특히 제어봉 안내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3호기와 4호기 모두 ‘인코넬-600’이라는 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발전소에서도 같은 유

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민간감시위원들은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폐쇄적이고 철저한 비밀주의, 보안주의에 따른 운영”이라며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한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계속 수행하면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장점에서도 유은혜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360° 입체안티에이징의 꿈

어떤 각도에서도 매끄럽고 또렷해 보일 수 없을까요?
피부 활성 성분인 **엡셀 2.0**과 혁신적 안티에이징 성분인 **바이오ERP**로 업그레이드 된 **에이지 어웨이-8주 만에 얼굴의 바이오그래프**를 올려주니까 어떤 각도에서도 탄탄하고 생기 있는 피부가 됩니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모디파이어 & 인텐시브 오일

헤라 에이지 어웨이 모디파이어를 특별하게 만나는 기회
아모레 키오셀러를 통해 에이지 어웨이 모디파이어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에이지 어웨이 심름 세트 7종 / 셀 에센스 미스트 30ml / 특별 포인트 8,000점을 드립니다
*기간: 2012년 10월 20일~11월 20일 한 달간 •문의: 고객상담실 080-023-5454

•바이오그래프란? 노화/탄력/윤곽 등 한국 여성의 노화증상을 지수화한 그래프

HERA

AGE AWAY MODIFIER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AGE AWAY INTENSIVE OIL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NEW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오일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키오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